

#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미향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02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2. 30.

발 의 자 : 윤미향 · 고용진 · 김경만  
민형배 · 송옥주 · 안호영  
양이원영 · 윤준병 · 이규민  
이수잔<sup>배</sup> · 이학영 · 임종성  
장경태 · 장철민 · 홍기원  
의원(15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「근로기준법」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해당 조항으로부터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.

2019년 학습지교사, 설치수리 현장기사, 도시가스 점검·검침원, 재가요양보호사 등 방문서비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2.2%가 고객에게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, 욕설 등을 들은 경험이 있는 등 일상화된 감정노동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.

따라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감정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방문서비스 노동자가 비난이나 고함 및 욕설 등의 감정노동 피해로부터 보

호받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1조).

##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 중 “사업주”를 “사업주(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로, “근로자(이하 “고객응대근로자”라 한다)”를 “근로자(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며, 이하 “고객응대근로자등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고객응대근로자”를 “고객응대근로자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고객응대근로자는”을 “고객응대근로자등은”으로, “고객응대근로자”를 “고객응대근로자등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,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-----

-----고객응대근로자등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.

③ 고객응대근로자등은-----

-----

-----고객응

대근로자등-----

-----

-----.